마음을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 21면에서 계속

어나도 은연중에 자기 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손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뿌리도 알게 될 것이며 조상들도 마찬가지여서 양면이 다 알게 됨으로써, 즉 말하자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냥 절에 와서 촛불이나 켜고 향이나 피우고 물이나 떠 놓고 꽃공양이나 하고 '난 절에 갔다 왔어.', '나는 불교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걸 알고, 자기로 인해서 공용을 하고 돌아간다는 거를 알아야만이 바로 불교를 아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다 생명 없는 것이 없으므로 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해서 돌아가게 했고 천차만별 생명들의 모습들이 다 그 나름대로 전달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 하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 하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 하듯 다 자기네들끼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말을 하고 전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출한 거는 뭐냐. 말 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도리입니다. 이게 정신계의, 바로 중용의 진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돌아가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나 과학자나 천체물리학자가 자기 소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걸림 없이 타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는 일체 우주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가깝고 멀고가 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만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학술 이론 등 지금의 지식이나 의학계의 모든 거를 동원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100%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그 병도 어디서 온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계의 50%를 충당할 수 있고, 거기에 물질로써 커버하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의료상의 50%가 종합돼야 우리가 100%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러합니다. 기계 하나를 만들어 놔도 그 사람의 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장승을 하나 세워 놔도 장승 세워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고 오면서 보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거기 투입이 돼서 다 신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을 해서 저렇게 모셔 놓으면 그 모습만 봐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마음을 거기다 다하기 때문에 여래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부처님도 안 계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 내는 것이 없다면 목석이 될 것이고, 체가 없다면 무효일 것이고, 정신계의 근본이 없다면 바로 또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주 높은 데고 낮은 데고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에게 '주인공에 관하라' 하니까 자기 빼놓고 주인공이 개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공이 있다' 하니까 '주인공에다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준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해야지 '당신이 좀 해 주시오.' 하면 그것도 기복이지요. 생각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인공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면에, 육체 속에 있는 그 많은 생명들이 저 좋은 대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 직원들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 수효가 그렇게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먹는 것도 없습니다. 혼자 보는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결부됐으니까 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간장이니 위장이니 심장이니 모든 게 한데 붙어서 정맥 동맥이 그냥 같이 돌아가는데, 혼자 사는 게 어디 있고 혼자 먹는 게 어디 있고 혼자 일하는 게 어디 있고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자기 일상생활 그대로, 근본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움죽거리기 때문에 육신이 움죽거린다는 거를 알면 내면의 모든 일체가 다 내 마음에 의해서 움죽거리는 걸 아실 겁니다. 내면에서 마음의 선장이 '이렇게 하자' 하면 전부 따라 줍니다.

명의 의식들하고 통한다면 자기가 자기 죽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자기 죽이려고 나쁘게 하는 법 보셨습니까? 자기가 살 양으로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 관습에 얽매이게 하지 말고, 또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가 한 거니까 네가 그러지 않게도 할 수 있잖아!' 하고 다시 놓는 것이 자생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말로 하자면 복잡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 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난자에 포함돼 가지고 자기 영혼에 다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세계에서 화가 나고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이 있고,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거나 화가 나서 '에이그, 죽어 버리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나, 다 그냥 흩쳐 버리고 어디로 가고 싶거나 하는 것들이 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올 때마다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라 이 겁니다.

생명의 의식들은 바로 한 집에, 한 독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마음이 선장이 돼 가지고 잘 다스려 나가면서 제도를 해야 "아래로는 제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래로는 자생 중생 자기를 제도하면서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둘이 아닌, 자기 주인공과 둘이 아닌 도리를 항상 잊지 말 것이니" 하는 거죠. 이 모두가 습득이 돼서 잘 아신다면 참자유인이 될 겁니다.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를 믿는 것인데 왜 못 믿습니까. 누가 형상을 믿으랬나요, 이름을 믿으랬나요, 허공을 믿으랬나요, 어느 스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랬나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자라든지 모자라지 않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바로 자기 뿌리를 믿고 거기에 다 놓으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체가 없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체가 없는 자기 의식들이 너무 많아서, 한마음에 그 의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어느 회사에 직원들이 수천수만이라면 회장님 한 생각에 직원들이 다 움죽거리게 됩니다. 안 그럴까요? 이거 하라는데 저거 할까요? 그러니까 한 회장님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의논을 하고 모두와 조화롭게 한번 결정을 해 놓는다면 모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내가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거기에 믿고 놔야만이 결정적인 결재를 하는 겁니다.

결재를 해서 내려야 모두 작용을 해 주는 겁니다. 안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는 우주간 법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즉 말하자면 모든 걸 채근해서 좋은 거는 들이고 나쁜 거는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대기권이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도 지구의 대기권과 같이 세포 하나하나에서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다 채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결재가 된 거와 같아서, 바로 마음에서 그럭하면 두뇌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전체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안에서 모자라는 것은 뭐든지 다 보급을 해서 채웁니다. 호르몬도 모자란다면 채워 가면서 작용을 합니다. 또 바깥의 일들이 위태롭게 될 때는 바로 세포의 법계에서 의식들이 나가서 바로 마음과 마음 속으로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일체 만법은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한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리를 못 하고, 믿지를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많아서, 이름도 많고 의식도 많은데 많은 그게 하나로 뭉쳐서 한마음으로 선장이 돼 있다는 사실이며, 그 뿌리가 바로 선장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허왕지왕 허왕지왕 해 가지고 업식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막습니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 것을 그렇게 애탄지탄 착이 갑니까? 지금 가다가 죽으면 어떠며 지금 조금 덜 먹으면 어떠며 더 먹으면 어떠며,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칠석날 촛불을 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의 밝음을 그대로 연결해서 내가 밝아짐을 말합니다.
산 사람이 촛불을 밝히듯이
내 마음을 밝혀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한 가정을 한데 합쳐서 이끌어 가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듯이, 내 몸속에 있는 일체 생명들과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도 너무 많으니 공생이지 그게 개별적인 자기 생명 하나입니까? 그래서 공생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에, 내 육체세계에 생명이 많이 들어 있는 것만 봐도 공생인데, 나로 인해서 또 혼자 살 수 없는 도리가 외부에 모두 있다 이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듯이, 회장이 있어야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어야 직원이 있듯이 이거는 양면의 한쪽만 없어도 무효입니다. 아니 됩니다. 작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럼으로써 혼자 먹는 것도 없고 혼자 버는 것도 없고 혼자 쓰는 것도 없고 혼자 하는 것도 없고, 모두가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를, 공생 공용 공체 공심! 그러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좋게 하자' 하면 좋게 따라 주고 '도둑질하자' 하면 도둑질하는 대로 따라 주고, 허허허, 이렇게도 따라 주고 저렇게도 따라 주는데 그거를 왜 믿지를 못하고, 왜 거기다가 맡겨 놓으라는데 진짜로 맡기질 못합니까? 모두가 자기 아닌 자기인데, 천체가 자기인데 자기 이름을 수효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포함해서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간장 공장에도 소임자가 있고 위장 공장에도 소임자가 있고, 몸속에 전부 소임을 맡아 가지고 제각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속도 한 나라라고 친다면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마음입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습에 끌리지 말고, 못 한다 한다에 끌리지 말고 단호히 당당하게 모든 거를 믿고 맡겨 놔야죠. 아니, 죽든지 살든지 같이 죽고 같이 살아요. 당신의 영혼의 근본이 떨어지면 당신도 송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도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마음이 진짜 내 모든 생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9월 19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스님과의신행문답

생활속의 불법수행

주인공主人空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길을 묻는 이들에게 건네는 차 한 잔의 법문

Q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 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도리인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